

수도권 남부 계란 물류 본거지로 부상한다



▲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남부유통센터 전경

3월. 남부유통센터
4월. 계란가공센터
5월. 대구유통센터
6월. 영주유통센터
7월. 북부유통센터
8월. 목포유통센터
9월. 서울본점경제

2003년 11월 출범한 한국양계농협은 출범 이후 오는 11월 이면 2주년을 맞이하게 된다. 전국 양계농가의 60%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신용사업 및 경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제사업의 계란판매사업 비중이 높은 상태이다. 한국양계농협은 지난해 경제사업 정상화 지속 추진의 일환으로 유통센터 운영 안정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하는 등 신속한 대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양계농협의 계란유통센터는 수도권 양주시에 북부유통센터, 용인시에 남부유통센터, 전라남도에 목포유통센터, 경상북도에 영주유통센터, 대구광역시에 대구유통센터 등 5곳이 있으며 경기도 평택시에는 계란 가공센터 1개가 있다. 전국에 산재한 계란유통센터는 조합원의 계란을 수집·선별·포장을 하여 각 지역 대형마트와 같은 소비매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가공센터는 유통센터에서 선별되는 계란(원란) 및 등외란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호부터는 계란유통현장인 한국양계농협 계란판매사업장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첫 번째 순서로 수도권 남부의 계란유통을 전담하고 있는 남부유통센터를 소개코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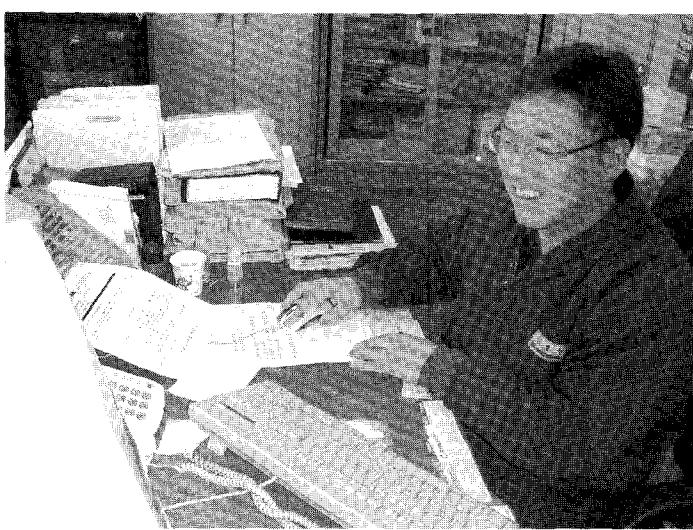
▲ 남부유통센터는 계란 신선도 유지를 위하여 8대의 냉장 탑차를 운행하고 있다

중부권 계란유통의 허브 역할

경기도 용인시 위치한 남부유통센터는 기존의 광주집하장, 용인집하장, 구리직매장, 안성집하장의 기능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수도권 남부에 위치한 남부유통센터의 유통 물량은 주중 1일 30만개, 주말과 휴일에 1일 50만개에 달하고 있다.

영업범위는 수도권 남부와 대전까지로 S·E·H 등의 많은 대형매장에 납품하고 있으며, E업체 식자재에 계란을 공급하고 있다. 계란수송은 신선도 및 안전을 고려하여 모두 냉장 탑차를 운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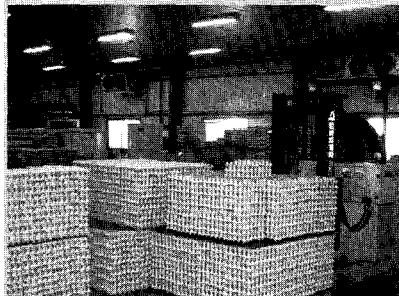
일부 대형매장에는 직원들을 파견하여 상품진열과 판매를 원활히 하도록 힘쓰고 있다. 매장에서 판매하는 공동 브랜드는 목계촌으로 판란(30구), 캡슐란(20구, 15구, 10구)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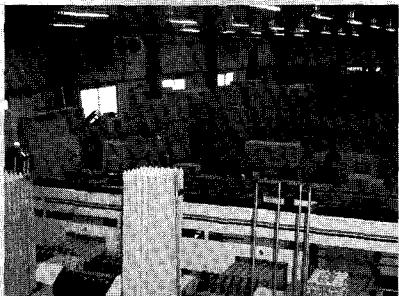
◀ 김동기 남부유통센터장장이 전산망을 통하여 일일 품목별 매출금액을 따져 보고 있다

판란과 10구 캡슐란의 판매비율이 높은데 최근 경기 악화 영향으로 판란 판매비율이 50%를 넘어서고 있다고 한다.

남부유통센터에서는 1일 2만개의 등급 판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1+ 등급은 농협 산소란으로 판매되고, 1등급은 H사에 PB상품으로 납품된다. 남부유통센터 책임자 김동기 장장에 의하면 “남부유통센터는 한국양계농협 유통센터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취급하고 있으며 중부권 계란유통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① 선별기로 이동



② 선별



③ 세척 코팅



④ 상품판 작업



⑤ 개별포장



⑥ 목계촌 박스포장

산지가격과 소비자가격 연동 안된다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해 물동량 증대도 중요하지만 조합원의 계란을 좋은 가격에 팔아주는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할인마트마다 계란가격 산정 방식이 다르고 과거 원가계산서에 의해 책정하기 보다는 유통업체 자체 모니터 요원들이 일주에 두 번 다른 매장들의 가격을 조사한 후 결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무리 산지 가격이 많이 변하더라도 소비자가격은 소비시장 수급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가격 결정의 변화는 과거 재래시장에서 계란이 많이 판매되었지만 이제는 맞벌이 부부 증가와 할인매장 쇼핑문화가 자리를 잡으면서 One-Stop 쇼핑을 즐기는 고객이 많아져 할인매장의 가격 결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판매수익을 조합원에 돌려준다

유통센터가 판란을 팔면 캡슐란에 비해 1/2보다 적은 조수익을 얻게 되지만 그럼에도 유통센터가 판란 비율을 낮추지 못하는 것은 조합원의 출하 형태를 수용하고 판매수익을 조합원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라고 한다.

2월 1일 기준 계란가격이 특란 142원에 고시되고 있는데 판란 비율이 높은 유통센터로서는 마진율이 점차 감소하는 것이 현실이며, 경기악화와 대형매장 간 영업점 점유율 경쟁으로 할인행사 요구 횟

수가 잣아져 판란 판매 이익율이 더 감소할까 우려하고 있다.

유통센터 마진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인정해 주는 상품란을 개발하여 캡슐란 판매량을 높이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경기 악화로 아직까지 판란 수요가 많지만 유통센터 입장에서는 캡슐란 수요를 높이는 것이 계란 파손율 감소, 마진율 증가, 기계화 도입 편리성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김동기 장장은 현재 우리나라 소가족 가정이 많아 판란을 구입하는 것 보다 10구 단위 소포장 캡슐을 구입하는 것이 냉장고 저장기간을 줄이고 신선한 계란을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계란 위생 · 안전성 · 신선도 유지

남부유통센터의 목계촌 계란은 품질 균일성을 높이기 위해 OEM 사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계란 안전성을 제고를 위해 농가관리 질병 사양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은 그날 수거하여 유통센터에서 세척 살균처리 후 바로 소비매장에 납품하는 시스템을 준수하고 있다.

취재 | 김종준 과장
3kjj8@hanmail.net



철 구조물 전문 시공업체

H빔, 갓쇼, 경량철골 계사, 돈사, 우사, 창고 외



광성철골

경기도 포천시 선단동 603-7번지

전 화 : (031) 543-1422

팩 스 : (031) 541-2497

휴대폰 : 011-352-6850